

'양성평등문화, 뮤지컬로 배워요'

도교육청, 이달·10월 총 6회 걸쳐 학생 참여·체험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양성평등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문 공연기관과 연계해 학생 참여·체험형 뮤지컬 공연프로그램을 마련, 각급 학교에 참여 신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전주·군산·익산 등 3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7월과 10월 총 6회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뮤지컬 공연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참여·체험형 뮤지컬 공연은 초·중등 각 발달단계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 공연 중 배우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며 호흡할 수 있도록 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첫 공연은 14일 익산·완주·부안지역에서 참여를 신청한 4개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 사이언스홀에서 이뤄진다.

공연명은 '메타버스 대소동'이상의 나라의 달콤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성차별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카톡·SNS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재단과장은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올바른 성 가치관 및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양성평등문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스톨미루 등 학교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수 유아교사 양성

인적교류 확대

전주비전대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진흥원과 산학 협력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강혜정 원장)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우수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확대, 유아교육과 학생 봉사 및 교육 지원, 기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전주비전대 유아교육과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에서 3회 연속 A등급을 획득,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양시내 학과장은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협력을 통해 예비 유아교사들의 현장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의 체험활동 운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 지원, △행복을 더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 △배려하고 공감하는 부모와의 소통 등 전북 유아교육 지원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본부, 전북약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독상담관련 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강사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 마약 예방교육 전문강사단 위촉식이 열렸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초중고교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 지원

도교육청, 마약 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 27명 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마약 예방교육 전문강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로 인력풀을 구성, 2023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강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본부, 전북약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독상담 관련 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강사 27명

이 참여한다.

이들 전문강사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재단과장은 "전문강사단의 활동으로 마약 예방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 시설관리 요령·통합정보시스템 활용성 향상

도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12일 3일간 2023년도 공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 전기, 소방 등 학교시설 유지관리 요령 △학교 자체 공사 추진 시 검토사항 안내 △학교 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 사용자 교육 등이다.

한편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은 학교 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시설관리 시스템으로, 입력 데이터는 정

/정은성 기자

해외 연구자들과 '인류세의 에너지 철학' 연구

원광대 조성환 교수 연구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조성환(사진) 교수 연구팀이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해외연구)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3년간 2억 8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류세 시대의 에너지 철학: 에너지, 기후(氣化), 분산(分産)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팀은 조성환 교수를 비롯해 박일준, 허남진(이상 원광대), 이원진(연세대), 캐서린 켈러(미국 드류대학), 클레이튼 크로켓(미국 샌트럴아칸소대학)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구과제는 2020년 하반기 조성환, 이원진 교수를 중심으로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등에서 수행한 '지구인문학 연구'에서 시작됐으며, 여기에 2022년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로 부임한 박일준 교수가 합류해 '인류세의 철학'으로 문제의식이 확장됐다.

특히 보스턴대학과 드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박일준 교수는 '지구정치인학'의 저자 캐서린 켈러 교수와 Energy and Change(2022)의 저자 클레이튼 크로켓 교수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해 '에너지 철학 연구팀'이 꾸려졌다.

한편 이번 연구의 목표는 최근에 기후 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에너지 문제를 동서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데에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대학생 캡스톤디자인 경진 '우수상'

전주대 산업공학과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제6회 한국융합학회 대학생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전공 융합 논문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제6회 한국융합학회 대학생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전공 융합 논문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회는 ICT 2023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해 전국의 41개 대학에서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전공 문제해결 능력, 혁신 기술과 창의융합능력을 바탕으로 산업 및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논문으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수상자는 산업공학과 이종원, 이현우, 강한경 학생으로 이종호 교수(산업공학과)의 지도로 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대 지능형기계부품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RecurDyn을 활용한 작업기 부착 위치에 따른 전기구동 승용관리기 프레임 스트레스 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입상한 이현우 학생은 "한 학기 동안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해 작성한 논문이 전국규모의 경진대

회에서 입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졸업 후에도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지능형기계 분야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종호 지도교수는 "기업과 연계된 캡스톤디자인발표는 기업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변화하는 산업에 더 필요한 문제해결형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업 연계 연구를 지속하고,

학회 출전을 통해 지능형 기계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능형기계부품사업(단장 이종호)은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로 6년째 산업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우수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등 전라북도 핵심 산업의 우수 인재를 양성 중이다.

/정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전공실무실습

실험실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국립군산대학교 지역기반 융합소재 인력양성사업단(물리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참여)에서 사업단 참여 학생 3학년생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5주간 전공실무실습 및 실험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실무실습 및 실험실 인턴십 프로그램은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의 전공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공 기술과 관련한 참여학과의 교수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이번 하계 기간에는 총 12개 과정이 개설되어 총 29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실무적인 능력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며 실제 실험적인 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불균일촉매 제조 및 활성 평가 실습에 참여한 조가는 학생(화학공학과, 3학년)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과 활성 평가 결과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지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군산=김광곤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도교육청, 초·중·고교 추천도서 100선 선정

학교급별 추천 도서 활용방안 함께 제시... 독서인문교육 체계적 지원 일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초·중·고교 학생 추천도서를 선정,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미래사회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정해 안내함으로써 책 읽는 학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이번 추천도서는 도내 초·중·고교 교사들로 이뤄진 인문독서교육강화 현장지원단의 토의를 거친 후, 학교급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4가지로(1~2학년·3~4학년·5~6학년·공통)

분류해 추천했고, 중학생은 2015개 정교과과정 관련 성취기준을 활용한 '독서성취주제' 10가지를 제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추천했다. 또 고등학생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예술, 문화 등 5개 분야로 추천했다.

무엇보다 추천도서를 각 학교에 안내하면서 단순히 목록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안내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추천도서별로 성취기준과 주제어를 제시했고, 중학생은 추천 도서의 수업 활용 예시와 함께 읽으면 좋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제공했다. 또 고등학생은 문학을 50선으로 확대해 작

품별로 2015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시해 독서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추천 도서를 기반으로 학교별 자체 독서교육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나아가 학교급별로 추천 도서 수업 사례를 공모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문해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천 도서를 활용한 책임기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우리 학생들이 성숙한 자질을 확립하고, 더불어 책 읽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탄소중립 실천, 지속가능 미래 배운다

도교육청, 오늘까지 28개 실천학교 담당교원 워크숍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14일 이틀간 28개교 탄소중립 실천학교 담당교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탄소중립 실천학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탄소중립 실천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력을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13일은 전주세계평화의정원에서 탄소중립 실천학교 교장·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생태철학과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강의가 펼쳐졌다.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이상일 연구위원장의 '학교 탄소중립의 방향' 특강과 탄소중립 실천학교 운영 안내 및 탄소중립 실천학교 운영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 14일은 탄소중립 실천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각 학교의 실천 사례와 전북의 환경교육 정보를 나누고,

에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학교별 사례와 정보 공유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이슈와 전북환경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탄소중립 실천학교 28곳은 체계적인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운영하는 전북교육청의 환경교육 선도모델 학교"라며 "탄소중립 실천학교 교원의 환경리더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의 다양한 학교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